

GFEZ Journal

Winter 2016



Cover Story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점재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 실현을 통해 지역과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더 나은 성장 조건을 찾아 모인 인재와 기업이 광양만권에서 가치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속성장을 이루는 공유의 힘

겨울이면 기러기는 4만Km를 이동하는 긴 비행을 시작합니다. 작은 날갯짓으로
대 장정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은 함께하는 동료 기러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날갯짓이 기류에 양력을 만들어 혼자 날 때보다 71%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가 찾은 새로운 발전 전략은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인(人)의 모양처럼 서로 기대어 도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속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知

- 04 62th Theme 눈 내린 아침
- 06 Theme Story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 공유경제

通

- 08 GFEZ HOT Topic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단
에버딘대학교 설립 승인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기대
- 10 GFEZ Brief News 광양청 10대 뉴스
- 14 CEO Column 공유로 광양만권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파트너
- 16 GFEZ View 공유하는 미래에서 찾는 광양만권의 지속 성장 정병희 위원
- 18 GFEZ People 초경량 신소재 생산 선두기업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 22 Invest in GFEZ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광양지구
- 24 Local News 주요기관 소식

言

- 26 Trip 자연의 아름다움, 겨울 낭만 찾아 순천
- 30 Festival 새 출발, 새 희망 밝은 기운 가득 담은 정유년 해맞이 행사
- 32 Work 행복한 직장인의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
- 34 Economy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꼭 알아야 할 금융사기 예방법」
- 36 GFEZ Cartoon 세풍산업단지가 미래소재산업 특화단지로 개발됩니다!
- 38 독자후기 & 이벤트 SNS

08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단
에버딘대학교 설립 승인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기대

14 공유경제 실현으로
광양만권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파트너

18 초경량
신소재 생산 선두기업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22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광양지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춘 한국 경제 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저널 Vol. 62
발행인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집인
(주)DNS
발행일
2016년 12월 5일 (통권 제62호)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061-760-5091~3)
간행물 등록번호
진남, 바00035
홈페이지
www.gfez.go.kr



눈 내린 아침

솜털처럼 하얀 눈
어둠 속 춤추더니
온 세상 시름 덮는
환희의 아침

늦은 소나무
하얀 면사포 둘러 쓴 듯
눈 내린 곳마다
아름다움 신비한 정경

나무에 쌓인 눈
바람에 날리우다
멈추어선 곳마다
눈꽃으로 화사하네

이름없는 시인의
탄성 소리
시가 되고 노래 되어
눈오는 아침을 여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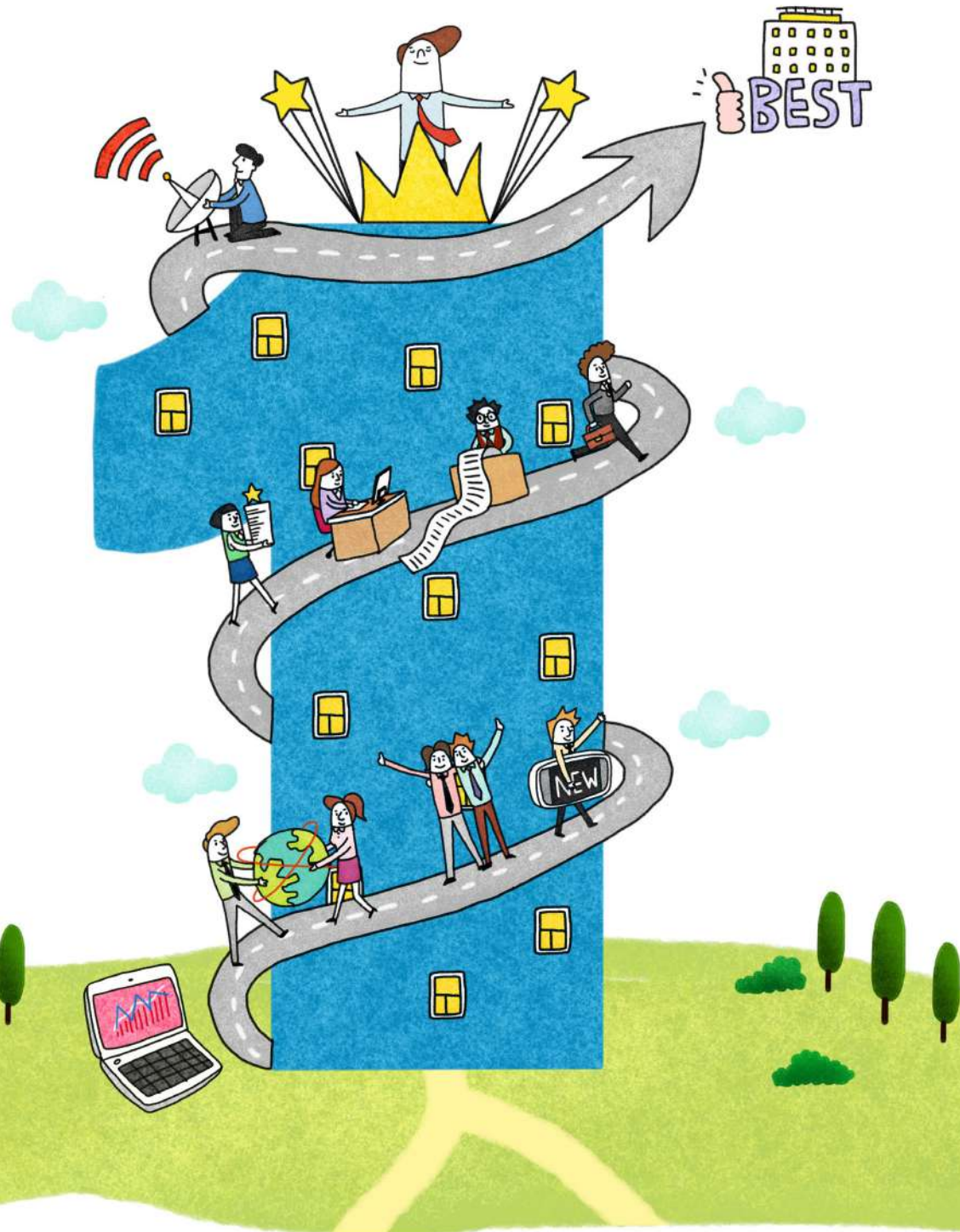


Theme Story.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 공유경제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공유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올 초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각종 산업군이 타격을 받자,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정보통신(ICT) 기업들 또한 대표적 분야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분야선점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은 연결의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데이터 세상의 지배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원천은 데이터에 있다. 더 많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하고 기록할수록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의 가치는 높아진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 해석해 광고판매에 이용한다. 세계를 하나로 묶으면서 시장의 힘이 강화되는 것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창출하는 고성장 가치

이와 더불어 다보스포럼에서는 오는 2025년을 '공유경제 시대'로 규정 짓기도 했다. 소유와 소비의 개념을 바꾸어야한다는 일종의 지적이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는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에게 필요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1월, 4대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중 하나인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의 규모가 2014년 기준 150억 달러(약 17조1300억원) 규모에서 2025년까지 20배가량 증가한 3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유경제비즈니스로 성공 기반을 갖춘 사례

월스트리트저널(WSJ, 2015)은 2015년 전 세계 스타트업(startup) 기업 순위 1위는 우버, 2위는 샤오미, 3위는 에어비

모바일 차량중개업체인 우버는 운송 분야 전문가가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을 장악한다. 숙박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재고 없이 성과를 올린다. 우버는 자사 소유 차량이 한 대도 없고, 에어비앤비는 자사 소유 숙박업소가 전혀 없다. 기업 활동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재고관리가 이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버는 기본적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고, 설정된 가격에서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80%를 운전자가 가져가는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차량예약 서비스와 카셰어링 회사로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주택, 아파트, 별장 등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소유주와 이들의 자산을 빌리고자 하는 소비자 양측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소유주와 소비자의 신뢰와 평판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공유경제를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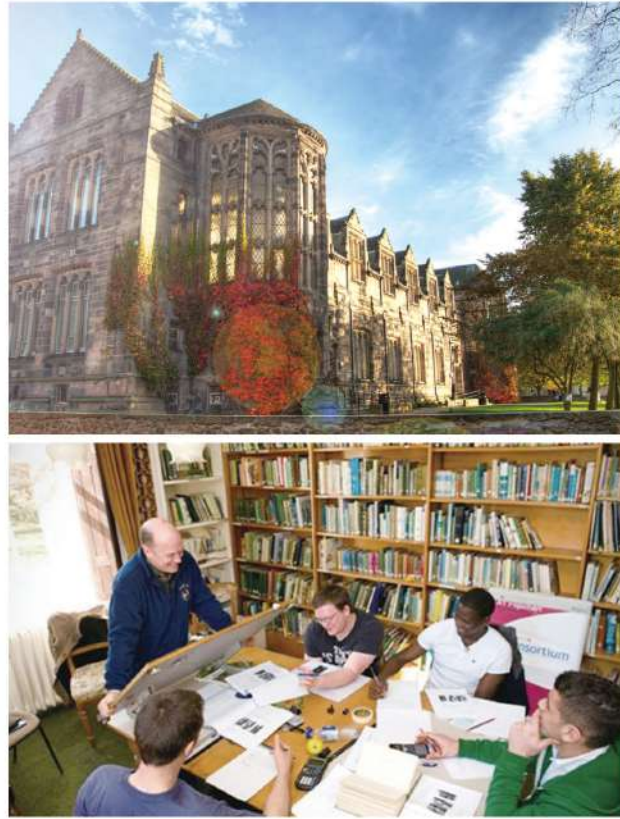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도 공유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가게이자 자선단체로서 기부받은 중고품을 판매해 마련한 기금을 사회자선 및 공익사업에 쓰기 위해 창설된 공익단체다. 사용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면에서 환경운동이고, 물품 재사용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 짓는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생활공동체 운동이다. 또한 물품 재사용을 통해 마련한 기금은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점에서 시민참여형 자선운동이다.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의식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Kenneth Arrow)는 "신뢰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윤활유이자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가치를 늘리는 상품이며, 신뢰는 정부가 발행하거나 시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재화는 아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사회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과 '함께' 나아가는 사회적 경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해양에너지 분야를 이끄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단 애버딘대학교 설립 승인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기대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 풍부한 설비운영 경험,
유관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로 앞선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는 애버딘대학교의 설립 승인은
한국 해양플랜트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8월 5일자로 교육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업단지에 들어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의 설립 승인을 결정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교 첫 해인 내년도는 공학석사 33명, 공학박사 20명, MBA(경영) 25명 등 총78명을 정원으로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계열	계열별 학과		입학 정원	수학 연한	등록금
	소계열	전공			
공 학	석유공학	석사(MSC)	33	1년	20,000천원/년
	세부전공 없음	박사(PGR)	20	3년	16,000천원/년
경 영	경영 및 에너지경영	석사(MBA)	25	1년	39,000천원/년
계			78		

애버딘대학교는 1495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명문대학 중의 하나로 옥스퍼드, 캠브리지,

에딘버러, 글래스고, 세인트 앤드류대학 등과 나란히 영국의 전통적인 명문대학이자 엘리트 그룹의 일원으로 명성이 높다.

애버딘대학교는 에너지·해양플랜트 분야 세계 톱클래스 대학으로 화학, 물리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세계 우수대학 750개 중 연구실적 55위(2015 CWTC Leiden 순위), 세계대학 순위 QS(Quacquarelli Symonds, 영국 대학평가기관) 16년 137위, THE(Times Higher Education, 영국 대학평가기관) 15년 42위로 기록되는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애버딘대학교는 “유럽의 에너지 수도”, “세계 에너지 도시”인 애버딘에 위치한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특화된 대학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분야 교수진을 140여명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로컬 석유 및 가스 산업계와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앞선 정보와 기술습득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유치 배경은 현재 한국 해양플랜트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설계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의 전적인 해외의존과 20%를 밑도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형 조선3사의 주요 적자요인이 해양플랜트 핵심설계 인력 및 해양플랜트 산업에 특화된 경영인력 부족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조선해양 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해양플랜트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고급인력 양성과 확보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애버딘대학교는 해양플랜트분야에서 유전지 경험의 설

계엔지니어링 프로그램과 에너지관리의 경영교육프로그램과 같은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개발 면에서도 영국내 산업계와의 강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양플랜트산업 R&D 기반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가 개교함에 따라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물론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내 하동지구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막혀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를 계기로 하동지구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시발점으로 갈사만조선산업단지(170만평), 대송산업단지(41만평), 두우레저산업단지(80만평)가 당초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개발되고, 관련 기업체 투자유치로 이어져 마침

“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의 설립은 해양플랜트산업 R&D 기반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물론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USINESS

01

일본·대만 플라스틱업체
광양만권 산업시찰
제41회 극동아시아 플라스틱업계
컨퍼런스 연계



지난 10월 6일과 7일 양일 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2016 극동아시아 플라스틱업계 컨퍼런스」와 연계한 광양만권 산업시찰을 추진하였다. 이번 시찰단에는 일본, 대만 등 플라스틱업체 32개사가 참가하였고, 포스코, 여수국가산단 및 광양항, 울촌산단과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현장설명회를 추진하였다. 금번 광양만권 산업시찰단장으로 참가한 일본 플라스틱연합회 기시무라(岸村) 전무이사는 여수국가산단 및 광양항 등 우수한 산업인프라와 원자재 수급과 수출에 유리한 세풍산단의 잠재력을 실감하였다고 글로벌 사업 전개를 희망하는 일본플라스틱연합회 회원사들에게 세풍산단을 적극 소개하기로 하였다. 동 연합회는 일본내 화학제품의 원료에서 제품

까지 취급하고 있는 47개 플라스틱협회 등 단체들이 참여한 전국 규모의 조직이다. 아울러, 대만플라스틱공업협회 소속 18개 회원을 인솔하여 참여한 차이밍중(蔡明忠) 이사장은 광양항의 우수한 물류 인프라의 주시하여 한·중·일 공동 제품개발 및 시장공유 방향으로 활용하면 성공적인 비즈

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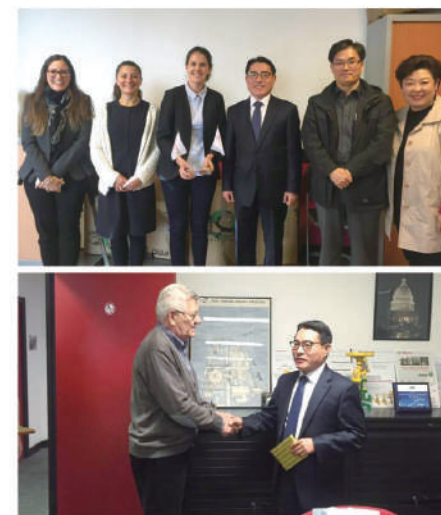
BUSINESS

02

권오봉 청장, 세풍산단 조성 및
유럽기업 유치활동
기능성화학클러스터 조성사업 홍보 및
유럽 잠재투자기업 방문 상담

유럽 투자유치단(단장 권오봉 청장)이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리옹, 독일 뒤셀도르프, 영국 런던 지역을 순회하며 기능성화학소재 및 첨단 부품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양경제청의 금번 유럽기업 투자유치활동은 광양만권 산업인프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특히 세풍산업단지의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및 외국인전용단지로 잠재 투자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금번 투자유치활동에서 광양경제청은 프랑스 화학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리옹지역을 방문하여 화학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들과 투자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두 지역간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협력사업 발굴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새트마, 제이에스티, 데스콧 등 첨단부품소재 분야의 프랑스 기업들을 개별 방문하여 투자상담을 진행하였다. 뒤이어 독일 뒤셀도르프지역을 방문하여 보홀레 에이취, 아이필러 운터네이만스 그룹, 게파르츠탈 등 잠재투자 유망기업들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도 펼쳤다. 특히, 뒤셀도르프 지역은 첨단부품소재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뒤셀도르프 상 공회익소와도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영국 런던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해외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BUSINESS

03

광양만권경제청,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외국 잠재투자
기업 유치 활동 탄력 기대



광양경제청은 10월 20일 신한은행(행장 조용병)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유치 및 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광양경제청은 신한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유망 기업 발굴 및 공동 투자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신한은행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예정) 투자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서비스 및 우대 조치를 약속했다. 권오봉 청장은 “우리나라의 리딩뱅크인 신한은행과의 상호 업무 협력으로 외국 잠재 투자 기업 유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광양만권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투자 상담부터 금융 지원 연계, 국내·외 기업 간 협력 주선, 기업 운영 불편 사항 해소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USINESS

04

광양만권경제청, 지역대학생과 광양만권
입주기업 현장 체험학습 실시
대학생 취업연계와 기업 인력난 해소로
두 마리 토끼 잡다

졸업을 앞둔 지역대학생 45명이 10월 24일부터 12월 16일 까지 8주 동안 (주)현대스틸 산업 등 광양만권 15개 입주기업에서 산업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기계, 전자정보통신, 컴퓨터제어, 용접, 품질 관리 등 다양한 직종에서 현장 실습을 하게



BUSINESS

05

광양만권경제청, 일본 유망투자기업
집중 유치 추진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외투지역 홍보 활동

광양경제청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일본 도쿄 및 후쿠오카 일원의 기능성 화학소재와 첨단부품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금번 활동은 광양만권 내 유망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 닛칸공업신문사와 지역기업연합회 규슈연계기구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잠재투자기업을 선정하고, 경제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광양만권 산업인프라 홍보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되며 참여 기업은 이들 학생들과 함께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게 되어 체험학습 종료 시 맞춤형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지역대학생 입주기업 현장 체험학습은 5년간 220명이 참여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산업체 멘토를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권오봉 청장은 지역대학생 입주기업 현장 체험학습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많은 입주기업과 대학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현재 광양경제청의 역점사업인 세풍산단과 해룡산단 등에 일본기업의 입주 유치를 위해 개별기업 방문과 소규모 설명회 및 간담회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도쿄지역은 자동차 시트 프레임 제조업체와 기계공작용 제조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을 방문상담 하였고, 후쿠오카 지역은 전기전자기계 제조, 수지가공, 초정밀 기계제작업체 등 제조분야는 물론, 광양항과 연계한 항만물류 창고업 등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의 산업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아울러 ‘2016 후쿠오카 제조업 페어’에 참가하여 한·일 기업간 비즈니스매칭 활동을 통한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부품소재 기업 발굴 활동도 동시에 전개하였는데, 광양만권 투자환경에 관심표명 기업들에 대하여는 조만간 현장시찰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BUSINESS

06/



R&D(연구개발) 강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울촌산단 강소기업, 한강중공업(주)

광양경제청 권오봉 청장은 10월 27일 GFEZ 내 입주한 한강중공업(주)(대표 서병영)를 방문하여 경영현황에 대해 환담하고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에 방문한 한강중공업(주)는 2011년 울촌산단에 입주하여 철구조물, 제철설비 등 산업설비의 설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2016년 10월에 현대제철(주)에서 주최한 제1회 기술박람회 전시업체로 참여하였고, 전시 개발품에 대한 양산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코일 변형 방지 이송대차, 좌굴 COIL 인출설비, 스트립 절단 칩제거장치 등 여러 개의 특허를 취득한 한강중공업(주)는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와 경기침체에도 흔들림 없는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 및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최하는 R&D(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기술 보유 우수기업체이다. 광양경제청 권오봉 청장은 기업 대표와 환담하면서 기업 경영 애로해결을 위해 광양경제청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경영 시 불편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USINESS

07/

광양만권경제청, 광양만권 입주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유망 강소기업 2개사[(주)코와스, (주)코인즈] 143억원 투자

지난 11월 2일 청사 2층 상환실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주)코와스, (주)코인즈 등 2개사와 143억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주)코와스(대표 김상천)

는 해양수산물 신기술 인증 기업으로 해룡산단 24,753㎡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의 주원인인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 제조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배관검사용 장비(인텔리전트 피그) 제조 기업인 (주)코인즈(대표 최명환)는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내년 6월 단지 준공 예정) 16,500㎡ 부지에 4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권오봉 청장은 “오늘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광양만권의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USINESS

08/

“전라남도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전라남도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기기 산업 선정과 지원정책 수립

광양보건대학교(총장 이성웅)는 11월 2일 광양경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

다. 이번 행사는 광양보건대학교가 주최하고 광양경제청이 주관하여 지역 각계 인사들과 대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성웅 총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한국경제의 주축이었던 철강·조선산업의 위기와 이를 타개할 신성장동력으로 의료기기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광양만권의 산업 인프라와 연관산업 집적,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이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추어져 신성장산업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선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낙후된 전남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광양만권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드원이 노테크의 김은영 대표는 경기도 군포에서 생산공장을 울촌산단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관한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양만권의 금속·화학산업을 기반으로 연구 기반 확대와 지원시책, 연관 기업 유치 노력이 경주 된다면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산학연관 협업으로 지역의료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광양경제청은 투자유치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BUSINESS

09/

권오봉 청장, 제17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참석 중앙정부 차원 관심과 지원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광양경제청 권오봉 청장은 11월 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하는 제17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청장협의회에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9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권오봉 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경미한 사항의 개발·실시계획 승인권한 일원화’ 2건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차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 상반기 주관청이 되어 청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BUSINESS

10/

화양지구 및 FTA 활용 투자유치 활동 전개



중국 동북지역 부동산기업 대상 부동산 투자이민제 홍보 및 한중 FTA활용 설명회 개최

광양경제청은 여수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및 한중 FTA발효 이후 중국기업의 광양만권 투자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哈尔滨), 창춘(长春), 선전(深圳)을 방문하여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홍보와 FTA 활용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권오봉 청장을 단장으로한 투자유치단은 11월 8일 하얼빈 뉴패리스 호텔에서 헤이룽장성 발전개혁위원회, 중국교통운수 협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글로벌 FTA 플랫폼”과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활용하여 세계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중국기업 30여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하얼빈, 창춘지역의 대표적인 부동산기업인 귀신집단(國信集團) 등 5개사를 방문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하였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투자유치 활동기간에 중국 동북지역 기업인들에 훌륭한 휴양지로 개발할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극 알리고, 투자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투자자와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획의 땅 GFEZ

공유로

광양만권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파트너

제품을 여럿이 나눠 씁니다. 이익을 고루 분배합니다.

경험을 자기만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고 모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광장에 풀어 놓습니다.

이러한 경제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 '공유sharing'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공유는 나눔이고 협력입니다.

홀로 크지 않고, 나눔과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는 게 공유의 가치입니다.

옷이나 신발처럼 간단한 기술로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던 산업사회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이 홀로 성장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카메라, 자전거, 라디오처럼 몇 개의 기술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던 시기까지도 나홀로 성장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2만~3만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회사라 하더라도 그 부품들을 스스로 모두 만들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를 통해 조달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도 성장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산업은 전혀 다른 분야가 섞이는 추세입

니다. 자동차산업에 첨단IT(정보기술) 기술이 접목되고 섬유산업에 나노나 바이오산업이 스며듭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한데 얹혀 가는 양상입니다. 때문에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유관기업들이 경험과 이익을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관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 이유는 동반성장에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국내의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산업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시간 거리에 광주·무안·여수·사천 공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여수~용산까지 2시간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순천-완주-목포-광양 고속도로와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육상교통망 연계도 매우 원활해졌습니다. 어느 교통수단으로 오더라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기업 활동에 가장 중요한 SOC의 공유를 광양경제청이 제공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등 굵직한 국가산업인프라와 연계되어 있어 사업기회가 넘쳐납니다. 여수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가가 매우 저렴하고, 산단분양가는 인천이나 부산의 1/3에 불과합니다. 국책기업의 힘, R&D 역량, 효율 높은 토지 기반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광양경제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이처럼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곳은 드물 것입니다.

광양경제청은 이 같은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일본·중국·서구팀으로 전문화하고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팀은 바이오 소재와 기능성화학 소재, 중국팀은 부동산·레저·생활화학·농수산식품저온유통체계, 서구팀은 금속가공분야와 탄소나노섬유 등 각국의 산업특성과 매칭하여 잠재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종류의 기업이 모일수록

공유환경이 넉넉해져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유가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환경변화 등으로 해외투자 유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낼 때 광양경제청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경험의 공유, 이익의 공유, 가치의 공유를 통해 나누고 협력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광양경제청은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건설'을 목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들의 구체적인 노력은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험과 이익의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고 촉진시키는 것이 광양경제청의 일이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기업들만의 성장을 돕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의 성장, 국가의 도약으로 연결됩니다. 경험, 이익, 가치, SOC 등의 효율적인 공유를 깊이 연구하고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니다. 광양만권의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대하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우리청 직원들과 광양만권 기업인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공유하는 미래에서 찾는 광양만권의 지속 성장

정병희 위원



•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순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 제4, 5, 6대 순천시의회 의원

정병희 위원

Q GFEZ 조합회의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A GFEZ 조합회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경남 하동군 각 지역의 도의원과 부단체장이 조합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역 발전 논의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합회의 위원인 저는 GFEZ의 이익과 발전을 대변하고 예산심사및 경제청이 올바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위원님들이 GFEZ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Q GFEZ 조합회의 활동을 통해 광양만권의 성장 발전을 위해 특히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500개 기업, 250억 달

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양만권에 속한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광양경제청 조합회의 위원이자 전라남도여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저는 지난 14년 간의 시정 경험을 통해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 간 긴밀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호남권 최초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된 해룡산업단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Q GFEZ 조합회의는 광양만권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역 의원으로서 다른 조합위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경험이나 정보가 있다면?

A 순천지역 의원으로서라기보다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한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의견은, 항상 협업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양만권을 이루는 각 세부지역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할 때, 이기심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범지역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Q GFEZ가 가진 잠재력과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GFEZ는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하였다는 큰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물류 중심 도시'의 타이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는 선구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만권은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관·연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에 '기능성 화학소재 R&D센터'와 '바이오 패키징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새로운 성공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중 기업지원 분야 1위로 평가 받는 GFEZ가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정지원으로 투자기업들의 성공적 안착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광양만권이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GFEZ의 최대의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A 세계 변화의 흐름에 맞춘 체질 개선은 기존의 강점 산업에서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석유, 철강, 항만물류 등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컨대 철강 산업의 경우 향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는 특수강 중심의 경량금속산업으로 시야를 넓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해룡산단에 위치한 포스코가 경량소재 마그네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 1천23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개발하고 이를 항만물류산업 및 기타 유관 산업과 연계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Q 위원님께서 순천시의회의 의원,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해 오면서 지역 현안을 두루 살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역이 기울여야 할 노력이 있다면?

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타이틀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산업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격적인 경제활성화 전략 실행을 통해 광양경제청이 역동적인 업무 추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포스코의 꿈 'POSCO Mg In Every Mobile'

초경량 신소재 생산 선두기업 (주)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순천 해룡산단의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최첨단 신소재로 주목받는 마그네슘의 연구·기술 개발을 통해 경량화와 성형성, 내식성을 충족하는 마그네슘 판재를 생산하며 미래 소재 시장의 리더로 나아가고 있다.

마그네슘의 비중은 철 25%, 알루미늄 70%에 불과하다. 금속 중 가장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물질 마그네슘은 높은 비강도(비중 대비 강도)와 충격흡수 기능, 전자파 차단 등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협폭판재(폭 600mm)는 스마트폰·노트북·TV 등의 경량화·슬림화 제품 최적 소재로 널리 상용화되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부식특성 때문에 광폭판재(폭 2,000mm) 상용화는 어렵다고 여겨졌다. 광폭판재는 주로 외장재로 활용되는데, 고도의 내식성(부식에 강한 성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마그네슘은 외장재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통념을 뒤엎는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2015년 세계 최초로 포르쉐911 자동차 루프(천장) 8000대 분량의 광폭판재를 주조해 공급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10대 미래먹거리 산업(World Premier Material)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위치한 (주)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포스코의 신소재 개발 성과 그 자체다. (주)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2007년 폭 600mm의 압연판재를 생산하는 협폭공장을 준공했고 2012년 폭 2,000mm 광폭 주조설비를 완공했다. 현재 주조설비만 갖춘 광폭공장은 지난 10월 순천시와 1,23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면서 압연설비와 후공정 설비 구축의 길을 열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강기업으로 이름나 있다. '철강기업' 포스코가 마그네슘 사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철강산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산업부가 발표한 <철강 구조조정 리포트>는 철강기업들이 점차 경량 금속재료를 개발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초경량 소재로서 마그네슘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술개발 저력을 바탕으로 마그네슘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주 생산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품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궁금하다.

실용 금속 중 가장 가벼운 마그네슘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철 25% 알루미늄 70% 정도 무게를 가지며 비중대비 강도가 매우 높은 마그네슘은 자동차, 가전, IT, 방위산업, 의료산업 및 각종 산업용기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마그네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자동차 내장부품(시트프레임, sm7 노바에 적용)이나 루프(포르쉐911에 적용), 노트북, 스피커 진동판(마그네슘은 고급 스피커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마그네슘 소재는 어떤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가?

마그네슘 소재 생산은 크게 주조-압연-세정-정정 공정을 거친다. 잉곳(괴)을 수입해 주조과정을 통해 녹인 후, 액체화된 마그네슘을 롤과 롤 사이에 통과시켜 판재로 뽑



신사업실 PosMAF 추진반 - 권오덕 상무

아내고 코일형태로 감는다. 코일은 열처리 후 다시 롤과 롤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를 만드는 압연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길이와 폭으로 자르는 정정 공정으로 마무리한다. 현재는 협폭판재공장에만 이러한 공정이 설치되어 있고 광폭판재는 주조공정만 설치되어 있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유일한 최고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특히 자동차용 마그네슘 판재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재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판재 이용 기술까지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또한 우리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도 있고

2015년 세계 최초로
포르쉐911 모델에
자동차 루프용 마그네슘
판재 생산 및 공급



자동차용 철강 판재도 만들고 있어 단순히 소재생산에서 멈추지 않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기능이 좋은 신합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마그네슘은 성형성이 좋지 않고 내식성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는데, 우리 기업은 성형성을 극복해 노트북을 생산하는 국내 양대 전자사가 앞 다투어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내식성은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원천특허를 얻는 것이 최종 목표다.

당면한 사업으로는 기존에 주조만 해왔던 광폭판재공장 설비에 압연, 연마 공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한 압연기술과 후처리기술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존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차원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다. 사실 세계최고의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신소

재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다. 우리 기업의 캐치프레이즈는 POSCO the Great인데, 지치지 않는 도전으로 미래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대한 포스코를 만들어낼 것이다.

기업의 추구 가치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분야에 함께 도전하고 성공을 위해 함께 인내하고 성과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직원들은 생산과 R&D를 병행하고 있다. R&D는 시험생산 실패가 빈번하여 스트레스를 피하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묵묵히 견디며 연구를 지속하는 우리 직원들이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2020년 이후를 이끌어 갈 10대 신소재’ 국가 프로젝트를 6년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다. 이 사업은 포스코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 잘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도전과 인내가 통했는지 노트북과 자동차 부품 분야 상용화를 이뤘고 라인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함께 나누다보니 직원 개개인이 자신감을 얻어 일하고 있다.

포스코는 “순천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산업 생태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그네슘 생산기지로써 해룡산단이 가지는 매력점은 무엇인가?

지난 8월,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경량금속소재’다. 티타늄,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개발하는 7년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해룡산단으로는 호재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마그네슘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 테크노파크 설비 중 일부가 마그네슘을 생산하고 있다. 마그네슘 판재뿐만 아니라 압출제품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압출제품의 원료인 빌렛도 금년 8월부터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기존 압출 회사 외에 또 다른 기업도 유치했다. 마그네슘과 관련해 기반 투자가 잘 되어있고 하나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GFEZ의 매력점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으로서 광양경제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그네슘 판재를 가공하는 생태계가 추가로 구축된다면 좋겠다. 현재 마그네슘 판재는 해외에서 가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점이 안타깝다. 마그네슘 판재 가공 생태계가 구축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증대될 것이고, 전자산업 육성과 유치에 힘을 기울이면 지역이 더 성장할 것이다. 자동차, 전자 관련 완성 업체들이 현재는 경기도나 창원, 구미 쪽에 모여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광양만권에 유치된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사업실 PosMAF 추진반 - 이명근 매니저 / 한용휘 안전파트장

임직원들과 속닥속닥

Q1 회사에서 가장 환호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1 이명근 우리가 개발한 신소재를 세계 유수의 회사들이 사 용을 결정해 상용화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고 환호했다. 한용휘 신사업이다보니 R&D 연구 개발을 같이 하는데, 테스트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매우 기쁘다. 지난 4월 수십번 실패했던 4m 빌렛을 결국 만들어 냈을 때 만세를 불렀다.

Q2 조직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2 이명근 글로벌기업이다 보니 어학능력이 요구 된다. 특히 마그네슘 사업의 경우 해외와 협력이 많아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영어 뿐만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도 미친다. 어학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한용휘 저는 직무와 관계있는 안전과 환경 공부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올해에도 관련 자격증을 하나 취득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주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같다.

Q3 포스코만의 자랑할만한 기업문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3 이명근 우리 회사 업무는 어느 한 분야에 얽매어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기르기 때문에 스마트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모든 직원이 다양한 방면에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업하기에도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Q4 새해를 맞이해 다짐하는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가?

A4 이명근 새해에는 10기로 정도를 감량해서 건강한 나로 거듭나고 싶다. 한용휘 50이 넘으니 건강의 중요성이 와 닿는 것 같다. 건강을 위해 37지만 하려고 한다. 앉았다 일어나기, 팔굽혀펴기, 하늘자전거를 매일 TV 보는 시간에 꾸준히 해보려고 한다.



황금산업단지 개발로 광양지구 제2의 경제도약 실현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광양지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조성되는 광양지구 황금산업단지는 총 3,0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1만 5천㎡의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이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동·서측 배후부지에 이어 개발되는 황금산업단지는 5분 거리의 광양항, 풍부한 인력풀, 최고의 기업 환경으로 완공 전부터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활기 넘치는 기업이 모여 있는 이곳,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이곳, 바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이르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천혜의 항만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하는 광양지구는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철강생산 업체 포스코와 화학의 중심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에서 다양한 기업이 오늘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며 매일 쉬지 않고 가동 중이다.

2012년 6월 완공된 경제자유구역이자 자유무역지역인 동·서측배후단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임대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되는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입주에 관심을 가진다. 현재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동측배후단지와 함께, 서측배후단지에도 복합물류, 음식료품 등 관련 분야의 업체들이 입주를 위하여 지속적인 문의를 해오고 있다.

광양지구에는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광양항컨테이너부두, 동·서측 배후단지와 더불어, 광양지구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새롭게 준비 중인 광양황금산업단지가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황금산업단지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일원 11만5천㎡(33만7천평) 규모로 조성되며 공공부문 441억원, 민간자본

2,566억 원 등 총 3,0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산업용지 72만1천㎡, 지원시설용지 3만7천㎡, 공공시설용지 35만6천㎡가 제공될 예정이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이다. 산업단지는 제2단계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이며 1단계는 2020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2017년 중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장입주 여건을 우선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토지 등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6년 8월에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였다.

광양황금산업단지는 광양항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자체 부두를 갖추지 않더라도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여러 교육기관으로부터 풍부한 인력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 환경으로 주목받으며 아직 완공 전임에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양항컨테이너부두, 동·서측배후부지에 이어 황금산업단지 함께 어우러져, 광양지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여수시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올해부터 보급을 시작한 전기자동차의 충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동 여수문화홀 옆과 돌산청사 보건소 앞 주차장에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기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아이오닉, SM3, 레이, 스파크, 쏘울, I3, 리프 등 총 7종의 전기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약 30분이면 충전이 완료된다. 공공 급속충전기 이용을 위해서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지역의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대상은 충전기 설치가 합의된 공동주택으로 심사를 거쳐 급속 및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며, 설치비용은 한전이 전액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에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각종 세제혜택과 저렴한 유지비, 대기오염물질 제로인 전기자동차 구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봉산 전망대와 연계한 대규모 녹색산림휴양공간 조성

광양시가 2018년까지 구봉산 전망대가 있는 구봉산 일원에 대규모 녹색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봉산 전망대와 연계된 주변지역 산림

60여ha에 19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힐링숲길과 야외쉼터, 네이처 스포츠, 숲가꾸기, 경관조림 등 권역별 테마가 있는 구봉산 산림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등 편입 예정 토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도 상반기에 착공해 201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봉산 전망대 등 주변 관광시설과 산림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봉산 전망대는 광양시 전역과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항은 물론, 여수와 순천, 하동, 남해 등 광양단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써 디지털 봉수대, 산책로, 포토존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순천시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업무협약

순천시는 11월 3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및 포스코 등 관련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전환 플래그십 추진 등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파리 기후협정 발효 및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부생가스 등의 탄소를 자원으로 유용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 전략과제인 탄소전환 플래그십은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부생가스 및 온실가스를 활용해



메탄올 등 유용한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추진 및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전남도, 순천시 등 지자체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동군

하동발전본부와 산업단지 건물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 MOU 체결

하동지역 공공청사 22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153만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하동군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한 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와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기 군수와 김만년 하동발전본부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사업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는 금성면 갈사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금성·진교·고전·적량면 농공단지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하동군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동발전본부는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MW당 20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관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에 되돌려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건물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부가세의 창출과 공장건축비 등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에 부응하고, 청정 산업단지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順天

순

천

— 자연의 아름다움, 겨울 낭만 찾아 순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

겨울이면 '심'에 대한 갈증이 깊어진다.

생명의 움직임이 가득한 생태도시 순천에도

어느새 고요하고 느릿한 겨울 풍경이 펼쳐진다.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지, 순천만 갈대군락지

순천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은 순천만 습지이다. 순천이 생태도시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순천만 습지의 역할이 크다. 굽이굽이 수로를 따라 형성된 70만 평의 갈대밭은 생명이 꿈틀대는 갯벌과 어우러지며 세계 5대 연안습지의 가치를 더한다. 순천 여행의 첫 여정지인 갈대군락지에서는 복슬복슬한 갈대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잠잠히 침묵하며 몸을 낮춘 겨울의 길목인지라 '풍성한 풍경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늦가을 갈대는 여

전히 빛나는 금빛 물결을 만들어내며 장엄한 생명을 말하고 있었다.

용산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뒤쪽에 야트막하게 솟은 아주 낮은 야산인데, 순천만의 비경인 S자형 수로를 감상하는 뷰포인트로 꼽히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드넓은 갈대 군락지와 갯벌을 뒤로하고 용산 전망대에 올랐다. S자 형태로 반짝이는 물길과 갈대군락, 하늘을 휘휘 날아와 지친 몸을 누인 겨울 철새의 월동을 두 눈에 가득 담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 정원

용산전망대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순천만 정원으로 향해본다. 순천 도심과 순천만 연안습지 사이에 조성된 순천만 정원은 생태계의 보고인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비롯해 23개 국가 83개의 정원이 아름답게 재현되어 있다.

112만㎡(34만 평)의 엄청난 규모에 나무 505종 79만 주와 꽃 113종 315만 본이 식재되어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문으로 들어선 후 먼저 수목원 구역으로 향했다.

나무도감원은 200여 종의 자생 나무와 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나무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어 식물 정보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순천만 정원에 옮겨진 '지구의 정원 1번 나무', 두 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100년의 세월을 한 자리에 뿌리내리고 살던 '근심 먹는 은행나무'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며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었다.

순천만 정원의 동천을 가로지르는 '꿈의 다리'를 건너 정원의 동쪽으로 향했다. 다리를 건너니 세계의 정원이 펼쳐진다.

나라별 특성과 환경에 따라 조성된 세계정원을 만나볼 수 있었다. 반듯반듯하게 깎아놓은 프랑스식 정원과 아기자기한 일본식 정원 같은 외국의 유명 정원뿐 아니라 국내 외 도시, 기업, 작가들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담긴 이색 정원들이 보물찾기 하듯 숨어 있었다. 동측 정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순천 호수정원'이다.

동측 한 가운데 조성된 호수정원은 6개의 언덕과 호수, 데크가 순천의 지형을 그대로 축소해 담아낸 형태로 구성되어 생태도시 순천을 이야기하고 있다.



드라마촬영장은 60년대의 순천 읍내거리와 70년대 서울 봉천동 달동네 그리고 80년대 서울 변두리 거리를 재현하여 중장년층은 자신이 살았던 60~80년대의 추억과 향수를 젊은 층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역사도시 순천에서 즐기는 시간여행

순천 하면 자연 경관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생태 도시로서의 매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순천은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역사도시다. 고인돌 공원에서는 선사 시대의 순천을,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는 조선 시대의 순천을, 순천드라마세트장에서는 1950~1970년대의 순천을 만날 수 있다.

순천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한 고인돌 공원은 주암댐 건설 당시 수몰 지역에 있던 고인돌, 선돌, 집터 등의 선사 유적을 옮겨 복원해놓은 테마공원이다. 고인돌 공원은 거대한 고인돌을 시작으로 과거 시

대의 집과 유물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히 관심이 갔던 것은 공원에 똑똑 놓여있는 돌덩이였다. 군집 형태의 돌덩이들, 커다란 바위덩이들이 모두 고인돌이었는데, 기존의 상식을 깨며 새로운 지식을 얻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아기자기한 초가집 지붕이 펼쳐져 있는 곳이지만 민속촌이나 테마파크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현재까지도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살아있는 마을이다. 맛있게 익어가는 귤감 꾸러미와 주민들의 바지런한 모습이 살아있는 과거를 실감케 했다. 대장간, 판아, 농기구 체



험 등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과거도 충실히 재현해 보는 재미도 풍부하다. 낙안읍성민속마을을 지나 시내로 향하면 꽤 넓은 부지의 순천드라마세트장이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의 변화가를 재현한 세트장은 당장 드라마 촬영을 시작해도 될 만큼 관

리가 잘 되어 있었다. 세트장은 과거의 시간과 작품을 회상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시대극의 주인공을 만드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과거의 주인공인 것처럼 컨셉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끊이지 않는 웃음과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다.



새 출발, 새 희망

밝은 기운 가득 담은 정유년 해맞이 행사

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속은 부푼 소망으로 가득 찬다. 일 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일 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날의 소망이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간절함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새해 첫날의 해는 그 소망을 마음껏 빌어 보는 매개체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를 마음속에서, 눈앞에서 띄운다.

여수 향일암 일출제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국의 4대 관음기도처 중 하나인 향일암에는 가슴 속 염원을 품고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인다. 흥겨운 사물놀이패가 새해를 깨운 후 일출제례를 지내고 나면 일출 소원 풍선 띄우기, 소원함 띄우기, 새해 덕담 나누기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의 향일암에 열망하던 새해 첫 해가 수평선 너머 드러나면 사람들의 탄성과 환희로 가득차며 해맞이 행사의 절정을 맞이한다.

📅 2017.01.01 (일) / 1일간

🏠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일원

☎ 061-644-4742 (향일암 종무소)

🌐 <http://tour.yeosu.go.kr>

순천만 해맞이 대축제

봉화산을 뒤로 지고 앞으로는 갈대와 갯벌, 멀리 남도의 섬들이 펼쳐져 순천만 전망대라 불리는 순천만 화포마을은 해돋이가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독특하고 서정적인 순천만을 배경으로 17년째 이어져 온 순천만 해맞이 행사는 소원 적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지신밟기 등 풍성한 새해맞이 행사가 흥겨운 한마당을 이룬다. 해맞이 대축제는 멀리 해가 뜨기 전부터 갯벌의 수로와 갈대 사이사이로 붉은 빛이 차올라 은은하고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 갯벌과 끝닿은 수평선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의 안녕을 기원해보자.

📅 2017.01.01.(일) / 1일간

🏠 순천시 별량읍 화포마을 선착장

☎ 061-749-3706 (별량면사무소)

🌐 www.suncheon.go.kr

여수 추천코스

무술목 전적지

오동도

진남관

남제골 벽화마을

순천 드라마 촬영장

용산전망대

순천만 자연 생태공원

순천 추천코스



직장인의 95%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한 매체의 조사 결과는 가속화되는 경쟁,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회사, 상사·동료와의 관계, 골치 아픈 업무 속 직장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장인에게 스트레스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면 이를 잘 대처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며 행복한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관리 방법을 알아보자.



행복한 직장인의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

직장인의 스트레스 유형

‘직장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48.2%)가 1위를 차지해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는 말이 실제 직장생활 속의 극명한 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과도한 업무(24.5%)와 실적 압박감(11.0%)이 스트레스 요인의 2, 3위에 각각 올랐다. 그 외에도 직무 자율성(7.4%), 협업(6.1%), 잦은 회의(1.5%)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다.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잠자기’가 3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음주’ 37%, ‘참는다’ 30%, ‘흡연’ 28%, ‘동료와의 수다’ 25% 등 다양한 해소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비결

Tips

- ① ‘고마운 일을 찾아라 : 매일 감사 리스트를 작성하자.
- ② 일하는 틈틈이 재미를 찾아라 : 뇌신경은 재미를 느낄 때 더 큰 자극을 받아 창의력이 높아진다.
- ③ 업무 환경을 밝게 꾸며라 :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장식들로 책상 꾸미자.
- ④ ‘걱정 노트’를 만들어라 :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자 할 때는 이를 언어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⑤ 인간관계에 투자하라 : 하루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노력부터 시작해보자.
- ⑥ 쉬면서 업무 효율을 높여라 : 90~120 동안 일하고 5분 쉼 때 업무 효율이 극대화 된다.

직장인 스트레스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으로 만연한 스트레스는 개인 외에도 한국 경제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재도약하는 데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스트레스는 자발적 동기부여나 창의성을 훼손하여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나 조직 차원의 변화이다.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 위로부터 촉진된 새로운 변화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불러넣을 것이다.



관리자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

관리자는 목표를 수립할 때 직원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역할의 모호성과 참여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 세심한 평가와 보상 관리를 통해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자율 출근제를 통해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직장인의 70%가 ‘최적의 컨디션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율 출근제를 선호한다. 자율 출근제를 실시한 결과 결근 감소, 작업수행 및 조직 참여도 증가,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됐다. 장기휴가나 안식년, 안식월 등 휴가제도를 통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다. 건설적인 휴식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또 회사 내에 휴식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등 업무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3·3 전략」 백성욱, 삼성경제연구소.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꼭 알아야 할 금융사기 예방법

일반 대중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사기는 더 이상 뉴스에서만 보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내가 사용하는 메일과 문자, 유사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출된 정보는 교묘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에 활용되며 금융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다.

무심코 누른 문자메시지 링크가 금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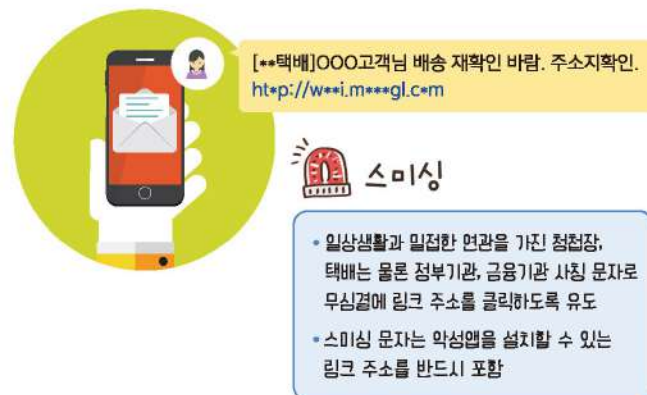
스미싱 (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앱을 설치하고 사용자 정보탈취 및 소액결제 등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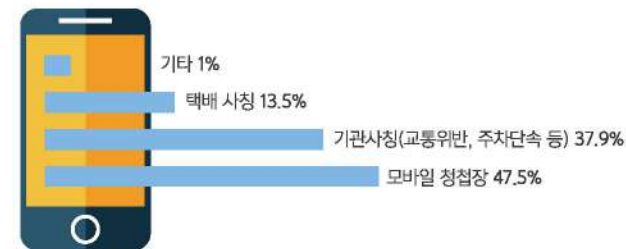
금융소비자를 올리는 스미싱 수법

스미싱 문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링크 주소 클릭을 유도한다.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데,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거나 모바일 뱅킹앱을 모방한 위조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다. 스미싱을 통해 설치된 악성앱은 연락처, SMS 사진 등의 자료를 탈취하는 유형, 금융관련 앱을 사칭한 위조앱으로 바꿔치기 하는 유

형으로 나뉜다. 자료를 탈취하는 경우에는 사진폴더로 저장된 보안카드 등을 가로채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 요금을 결제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 위조앱의 경우 사용자가 진짜 모바일 뱅킹 앱으로 착각해 입력한 금융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추가적인 악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스미싱 문구 유형별 통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실행을 자제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 번째 예방법이 되겠지만 이는 근원적인 스미싱 차단 방법은 아니다. 스미싱 문자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막아놓는 방법, 악성앱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의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비허용으로 설정해둘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휴대폰 소액결제가 뭔가요?

온라인상의 콘텐츠나 제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을 통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익월 통신요금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결제 방식이다. 해지 방법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막는 방법은?

설정 -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비허용’
※ 안드로이드 기종만 해당

피해가 발생했어요!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에 설치된 ‘apk’ 파일을 삭제하면 된다.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 금융정보를 남에게 알리지 말라!

파밍(Pharming)이란?

농장(Farming)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 PC를 조작해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 손해를 유발한다.

금융소비자를 올리는 파밍 수법

파밍은 금융 소비자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사이트 접속을 시도해도 위조된 가짜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들어 금융정보를 갈취한다. 보안 등급 등을 이유로 보안카드 번호 전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주된 수법이다. 최근에는 유명 쇼핑몰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이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를 포함해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정보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소중한 내 정보를 지켜주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금융기관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입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저장하게 되면 감염된 PC를 통해 정보가 그대로 누출되므로 절대 금융정보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금융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GREEN창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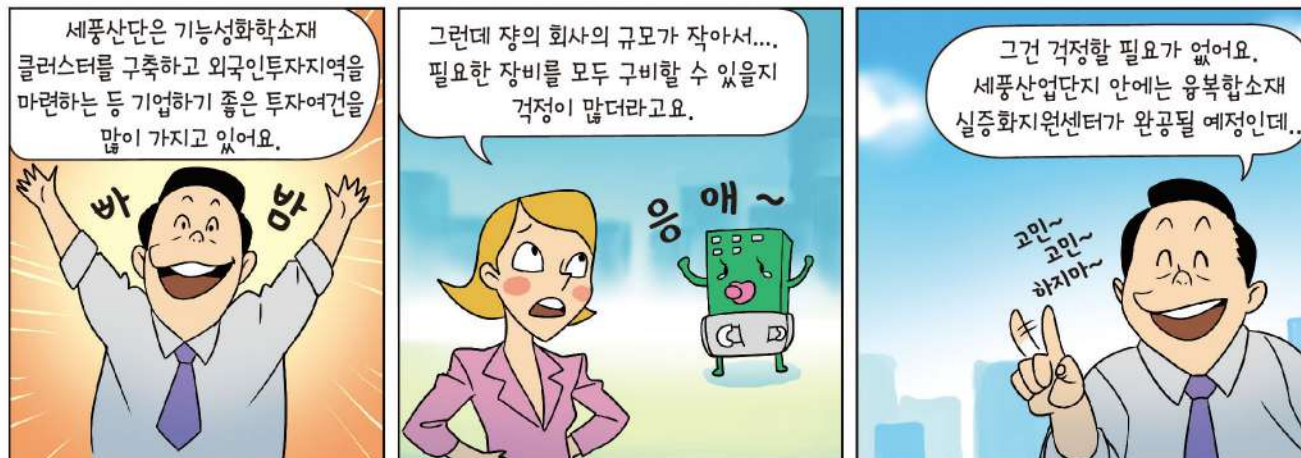
금융·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편적으로 인터넷 주소창이 녹색으로 나오며 우측에 자물쇠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소창만 유심히 살펴봐도 파밍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어요!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입력했던 금융정보를 해당 은행을 통해 변경하여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감염된 PC는 포맷하여 초기화 시키거나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치료하여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치료 절차를 따르면 된다.



세풍산업단지가
미래소재산업 특화단지로
개발됩니다!



탐나는 정보가 가득,

sns

<http://webzine.gfez.or.kr>

GFEZ 저널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GFEZ 저널을 읽고 느낀점이나 독자의 솔직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 코너를 통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칼럼이 좋았어요!

GFEZ Cartoon 화양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여수 화양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흥미로웠어요. 만화를 통한 설명으로 화양지구와 투자이민제에 대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화양지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의 휴양지로 거듭나게 될지 무척 기대됩니다!

오현서 독자

Trip 어느 가을 마주한 내 마음의 심포 광양



광양 여행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광양의 구석구석 숨은 관광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제철소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던 광양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어 무척 좋았어요.
장정훈 독자

QR코드로 참여하는 Quiz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퀴즈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퀴즈 참여 및 의견을 남겨주시는 독자들과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전달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퀴즈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광양청 웹진 주소 (<http://webzine.gfez.or.kr>)를 입력해 비밀번호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응모기간 2017년 2월 11일 까지

당첨자 선물

- 1등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 2등 (2명)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권
- 3등 (5명)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지난호 당첨자

- 1등 고 * 화(1458)
- 2등 오 * 서(3126), 장 * 훈(8052)
- 3등 진 * 정(9270), 이 * 훈(9625), 박 * 희(6766)
박 * 진(3250), 정 * 준(7260)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다양한 비즈니스기회



- 5개 지구 21개 단지(77.69km²)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산업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물류산업-광양지구
- 제조산업-울촌지구
- 주거산업-신덕지구
- 복합산업-하동지구
- 관광산업-화양지구



최적의 산업인프라



- POSCO 광양제철소
- 여수국가산업단지
- 풍부한 산업단지 (전국산단의 13.52%-189.6km²) 보유
- 저렴한 지가로 즉시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확보

편리한 교통인프라



- 세계적인 국제항만-광양항 (2015년 약272백만톤 처리)
- 1시간권 항공시설-4개 보유 (광주, 여수, 사천, 무안)
- 수도권 연결 KTX (여수-순천-서울)
- 5개의 고속도로 연결 (수도권 3시간대 접근 가능)

부동산투자이민제 전격시행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 위치 : 여수시 화양면 일원
- 사업면적 : 9.99km²
- 스테이 & 레포츠 존 : 체험, 휴양, 레포츠
- 컬처 존 : 쇼핑, 문화
- 엔터테인먼트 존 : 오락, 휴양
- 골프 존 : 골프
- 오션 & 마리나 존 : 휴양,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레저, 생활환경



-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 3개의 국립공원과 100km이내 530만명 배후시장확보
-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토지가격과 수용권 부여



- 정주여건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레저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지원

- 투자상담에서 사업개시까지 Non-Stop 서비스
- 업종에 맞는 입지선정 지원
- 시장조사 및 기업 협력파트너 알선
- 경영지원 보조금 지원